# 원수 앞에서 마음 처신하기

## (시편 7장 1~17)

1.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2.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 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3.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5.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 셀라 )

오늘 말씀 중심으로 <원수 앞에서 마음 처신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원수 앞에서 마음 처신하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조는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찬탈하였습니다. 상왕으로 물러나게 했다가 노산군으로 강등시켜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가 17세였는데 유배되었던 강원도 영월은 그 옛날에는 매우 궁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때에 단종의 유배 길을 수행한 관리가 금부도사 왕방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내막을 알았지만 사육신처럼 단종을 왕위에 지키고자 하거나 왕위를 회복시키고자 애썼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왕을 궁벽한 유배지에 데려다 놓고 돌아오는 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영월에 가면 청룡포가 있는데 그 청룡포가 바라보이는 냇가에 주저앉아서 시조를 읊었다고 합니다. 그 시조를 요새말로 고쳐봅니다.

천만리 머나먼 곳에 고운 님 여의옵고
나의 마음 둘 곳 없어 냇가에 앉았는데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가는구나.

여기에서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가는구나.'라는 구절이 문학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손꼽는 감정이입의 예입니다.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17세의 어린 단종을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영월 궁벽한 곳에 떨어뜨려놓고 돌아가는 금부도사의 심정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흘러가는 시냇물에 투사를 시킨 것입니다.
또한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몰입하는 경우에는 공감이라는 표현을 하고 내 감정을 어떤 대상에게 투사할 때에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 감정이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한 번 삼각관계에서 떠올려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나의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이 삼각관계에서 나의 마음이 끌려가거나 자발적으로 붙잡거나 어느 한 쪽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세상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본문의 말씀대로 정직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각관계에서 세상이라는 부분에 원수나 대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진상 손님일수도 있겠고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도 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상은 원수나 대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정말 치가 떨리도록 싫은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삼각관계 안에서 세상이라는 자리에 바로 이런 원수나 대적 혹은 진상의 인물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또는 인물이 아닌 원수 같은 사건이나 지긋지긋한 상황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처신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삼각관계 안에서 대부분 감정이입의 오류를 범합니다. 삼각관계 안에서 공감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감정이입의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목에 “다윗의 식가욘,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식가욘’이라는 것은 감정이 격하게 나타나는 시를 일컫습니다. 벤냐민 사람 구시가 도대체 다윗을 어떻게 모함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는 말을 들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생리적 요구를 느껴서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와서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이 볼일을 마치고 나가자 멀리 떨어진 후에야 나가서 자신이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죽이려 하느냐고 소리칩니다. 그 때에 한 말이 9절의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을 계속 모함하고 죽여야만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그 사람들 중

에 구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압살롬 사건에 관련하여 있었던 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모함하고 해치려고 하는 대적과 원수들, 혹은 사건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말씀해주십니다. 신앙인은 현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마음을 움직여 가야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5절에서는 그 대적들로 인해 다윗의 마음에 생겨난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삼각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했던 금부도사 왕방연이 냇가에 앉아서 17살 단종을 궁벽한 곳에 혼자 남겨둔 것을 생각하며 부른 노래에서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라는 부분의 감정이입과 같습니다.
원수 때문에 마음이 격동하고 분하고 억울합니다. 이 감정을 삼각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투사하여 하나님도 내 마음 같기를 바란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미워하셔서 처벌하시고 그들의 간계와 덫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할 때에 진상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속에서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참고, 여기서 화를 내면 일이 복잡해질 것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삼각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생각의 단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음의 변화가 보입니다. 5절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같은 마음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감정이입의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정이입이 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이입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정직한 신앙인은 그 다음 단계를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과 나를 동일한 위치에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삼각관계 안에서 첫 번째 주체가 나였습니다. 왕방연이 흐르는 물에 감정이입을 했던 것처럼, 내가 분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감정이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답게 곧 하나님의 우선적 주체성을 인정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깨닫습니다.
6~10절까지는 이제 원수와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대상이 됩니다. 다윗은 온 민족과 온 세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지금은 내가 원수에게 고통 받고 있지만 나도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원수였던 적은 없는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대상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적인 주체이시고 나와 내 원수는 동일한 신분과 위치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때에 10절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해답을 내놓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합니다. 즉 자기의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며 의롭게 여기시리라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곧 마음이 곧은 것입니다. 삼각관계 안에서 마음이 곧바로 하나님만을 향함을 뜻합니다. 지금 마음이 원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을 찾다가 깜짝 놀라 돌아와서 삼각관계 안에서 원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있음을 깨닫습니다. 마음은 점점 원수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부터는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적나라한 단어로 저주의 상태를 표현하지만 이미 11~16절 사이에서 다윗의 마음은 악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까지에서 자신의 대적에 대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앞에 두셨을 때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 느꼈던 억울한 분노의 감정을 투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 가지시는 마음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전단계로 나와 원수를 하나님 앞에 있는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원수는 악인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여김으로서 하나님을 우선적인 주체로서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의 시작은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구원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7절에 이르러서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라는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끝을 맺게 됩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시가 어떻게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게 된 것일까요?
원수와 나와 하나님과의 삼각관계 안에서 마음이 변해갔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가게에서 진상 손님을 만날 때가 있고, 회사에서 진상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의사에게는 진상 환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감정이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삼각관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원수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관계 안에서 원수도 나도 우선적인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나와 원수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있을 수 있는 악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공감할 때에 원수와 나의 대치국면은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원수가 의인이 아니라면 그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나설 일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면서 점점 더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다보니 17절의 노래처럼 의를 따라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잘못 행하실 리가 없으며, 원수들이 나를 격동하는 상황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타남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머나먼 나라에 팔았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던 것과 같습니다. 기근으로부터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서 악역을 담당하게 된 형들에게 오히려 미안하고 고마울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생기고 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에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난다면 그 마음은 오히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깊이 몰입하다보면, 원수가 나타나도 내게 해가 될 수 없고 다 필요해서 나타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적인 활동하심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다 회수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지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최고인 상태에서 느끼는 것은 원수들이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시작하면 원수들이 하나님을 망가뜨릴 수 없는 한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수들이 혹시 내게서 무엇인가를 가져가더라도 피해의식이나 손해의식을 느끼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대로 원수를 만났을 때에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소리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원수를 허락하셨느냐고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망하게 생겼고 신경을 써서 머리털이 다 빠지게 되었다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원수에 붙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빠져나오면 원수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내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을 원수가 절대로 해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원수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나의 기업과 몫은 바로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수 앞에서 하나님을 갖도록 하는 길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원수가 들어와서 억울함을 느끼던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원수를 내 마음에서

떼어내려 하지 말고 원수가 들어온 마음 통째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내 마음은 원수에게 붙들린 상태에서 빠져나올 것이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수를 향해 진짜 내 것은 하나님뿐이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나의 명성이나 이 세상에서 내게 속한 재산들을 해치려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해친다하여도 내가 손해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에 대한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때문에 생긴 마음을 하나님께 감정이입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로 인해 격동된 내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에 하나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원수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원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모든 원수와의 만남을 승리의 가나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어떤 원수도 영적 의미로 물리칠 수 있는 슈퍼맨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